

광양시, 로컬생태미식으로 지속가능 광양관광 꿈꾼다

배알도수변공원에 차려진 해변의 식탁 '광양매실 다이닝' 큰 호응
음식에 담긴 역사·문화 읽고 재방문 유도 미식여행 수요 창출 기대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미식 자원인 남도바닷길 먹거리로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남도바닷길 생태미식 관광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모니터링투어를 실시했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미식전문가, 여행기자,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에 포함된 광양·순천·보성의 연계코스 '남도바닷길 미식로드'와 광양 단독코스인 '광양발효밥상'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1박 2일에 걸쳐 운영된 '남도바닷길 미식로드'는 광양의 매실, 순천의 갯벌, 보성의 녹차 등 각각의 지리적·기후적 환경에서 형성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다채로운 풍경에서 체험하는 생태미식 여행프로그램이다.

광양투어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청매실농원을 둘러본 후 매실장아찌, 매실차 등을 맛보며 흥취를 얻는 것으로부터 농원을 일구는 스토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의 아름다운 풍경을 거닐고, 섬진강과 망덕포구를 따라 윤동주 유교 보존정병옥 가옥을 방문해 장소의 역사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어의 핵심코스는 배알도 수변공원에 매실과 매실청을 활용해 차린 '광양 매실 한 상'으로,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섬진강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특별한 풍경을 연출했다.
한 음식전문가는 "광양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며 "매실청을 이용한 광양불고기과 다양한 매실장아

찌, 매실막걸리는 환상적인 조화였다"고 평가했다.
광양 단독코스인 '광양발효밥상'은 향토 발효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쿠칭클래스,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백운산 트래킹, 로컬푸드 체험 등 광양의 자연과 미식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인문·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광양시는 투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상품을 보완해 당일, 1박 2일 등 다양한 테마와 코스로 연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지역의 자연과 음식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생태미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음식을 다시 맛보기 위해 지역을 재방문하는 비율을 높이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다"며 "미식여행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밀레니얼, 가족 여행객, 시니어 등 다양한 여행객을 광양으로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매실 한 상' 투어에 참가한 미식 전문가들이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아름다운 섬진강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고 있다. (광양시 제공)

“용서와 화해로 치유”... 여순사건 다룬 영화 ‘동백’ 제작 발표회

24일 크랭크인...9월 중 시사회 예정
내년 2월 베를린영화제 출품 계획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이 제작 발표회를 갖고 크랭크인에 들어갔다.
여수시에 따르면 영화 '동백'은 23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24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다.
제작발표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영화 제작사인 해오름 이엔티 신준영 대표, 배우 박근형·신복숙·김보미·정선일·서준영 씨 등이 참석했다.
'동백'은 여순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연실의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다.
아름다운 여수의 풍광을 배경으로 시대의 아픔과 한 가족의 일대기가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인사말에서 "여순사건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 모두가 피해자다"며 "'동백

영화'가 잘 돼서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화 제작을 맡은 신준영 대표는 "많은 유족을 만나며 그들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여수시민과 유족들을 위해 특별한 제정에 일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인 황순철 역을 맡은 박근형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아픔이 있다"며 "한이 폭발해서 복수하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를 보며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장연실 역을 맡은 신복숙은 "극 중 장연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화해와 용서로 새로운 장을 만드는 인물"이라며 "대사처럼 포기하지 말고 힘든 과거는 모두 잊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여수시는 9월 중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와 국회 방문 시사회를 갖고 내년 2월 베를린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 제작발표회가 23일 여수시청에서 열려 출연배우들과 제작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신복숙·김보미, 해오름 이엔티 신준영 대표, 권오봉 여수시장, 배우 박근형·정선일·서준영. (여수시 제공)

곡성군, 사과 품은 토란파이 개발
젊은층 인기...새 농가소득원 기대



곡성군이 특산물 토란을 활용해 만든 토란파이에 지역 농산물인 사과를 접목한 신제품(사진)을 개발했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말 기존 토란파이의 식감 개선과 토핑을 지역농산물로 대체한 새로운 토란파이를 개발하기 위해 식품환경연구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용역 중간보고회 때 토란파이 가공 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기존 제품, 개선 제품, 신 제품 3종 등 총 5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신제품 1종을 선택해 토란파이 개발에 집중했다.
곡성군은 최근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 농산물인 사과말랭이를 넣은 반죽에 기존 토핑인 아몬드슬라이스를 대체한 토란소보로를 얹은 토란파이 신제품으로 개발했다. 곡성군은 토란파이 신제품이 토란 가공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트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최종 선정된 신제품 1종과 개선제품 1종은 유통기한 설정, 영양성분 분석 실험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다가갈 예정이다.
곡성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토란파이는 사과의 상큼함이 더해져 소비자 대상 평가에서도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며 "토란파이를 통해 젊은 세대도 토란에 친숙할 수 있도록 토란가공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만 스카이큐브, 시민과 함께 활용방안 마련할 것”

허석 시장, TF 구성...다음달 인수위 출범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 경전철인 스카이큐브 운영 문제가 일단락돼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이날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활하고 빈틈없는 인수를 위해 이달 중 공무원 기획팀(TF)을 구성하고

7월 정기인사에서 운영 전담팀을 신설해 (가칭) 스카이큐브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카이큐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포스코에서 6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자산이며, 순천만 습지 보호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그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스카이큐브 문제 또한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방

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후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라며 반대 신청을 냈다.

수차례 협상 끝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에코트랜스에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갈등은 일단락됐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2년 성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람사르 습지도시 네트워크 초대 의장 도시 선출 등을 꼽았다.
허 시장은 "앞으로 2년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잘 보전된 생태가 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생태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대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대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대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